

# 五行和鍼法에 대한 연구(臟方중심으로)

감철우 · 박동일\*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Study on Hwa-acupuncture Theory

Chul Woo Gam, Dong Il Par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The theory of Hwa Acupuncture Therapy (HAT), called Hwa Chim Therapy, is a part of the Five Elements Theory unique to Korea. HAT, created and developed by Jaehoon Song, integrates the victor-vanquished as well as the son-mother relationship of the Five Elements of breakdown and restoration of balance between yin and yang. And also, it provides resources and data on The seventy fifth Difficulty(75難) of Classic on Difficulty - Nan Jin 75. HAT establishes objectiveness and accuracy of diagnosis based upon the traditional method and procedure of pulse taking. In HAT, a person's state of illness is diagnosed by applying the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palpitation of the pulse. It is fact that the pulse varies according to the state, and that HAT treatment has proven the positive results by using the victor-vanquished relationship of Classic on Difficulty-Nan Jin 75. Despite a concise and simple theory, Hwa Chim is very effective in treating a wide range of illnesses, and thus it has gained an increasing attention of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traditional Korean oriental medicine. However, it is the first theoretical attempt to the clinical research and scientific methodology of Ohaeng Hwa Chim, and more active Hwa Acupuncture R&D is being conducted nationwide.

Key words : Hwa-acupuncture(和鍼法), Ohaeng-acupuncture(五行鍼法), Classic on Difficulty-Nan Jing(難經), The seventy fifth Difficulty(75難)

### 서 론

鍼灸療法은 陰陽學說 經絡學說 臟象學說 등 동양의학의 기초이론을 근거로 하여 體表上의 일정한 부위에 각종 鍼灸와 조작방법을 運用하여 물리적 자극을 주어 생체에 반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동양의학 의기술의 한 분야이다. 이 중 五行鍼은 陰陽五行의 相生 相克의 原理를 이용하여 肘膝以下에 분포한 十二經脈의 五行屬性和 부합하는 穴을 이용하여 臟腑와 經絡의 陰陽氣血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鍼法이다.

五行鍼法은 조선시대 선조에 이르러 舍岩道人이 이러한 相生關係와 相克關係를 결합하여 自他經에서 補瀉穴을 取하는 舍岩陰陽五行鍼法을 창안하여 후세에 五行鍼의 基本이 되고 있다.

최근 한의학계는 과거의 體鍼이나 天應穴수준에서 벗어나 董氏鍼이나 一鍼 和鍼 平鍼 舍岩五行鍼 八體質鍼 등의 비교적 經絡學說이나 臟腑學說 陰陽五行설 등을 바탕으로 하는 五行鍼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응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 중 五行和鍼法은 백단 송재훈 선생님이 內經 및 難經 75難, 69難의 陰陽의 盛衰 및 五行의 相生 相克關係를 集大成하여 만든 五行鍼法으로 이론이 간단하면서도 분명하며 그 診斷의 객관성과 治療의 우수성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에 저자는 아직 미발표된 백단 송재훈 선생의 五行和鍼法을 소개하고 그 내용 중 五臟의 치료법인 臟方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본 론

#### 1. 연구방법

본 논고는 백단 송재훈 선생의 저서인 <和鍼法>1)을 텍스트

\* 교신저자 : 박동일, 부산시 진구 양정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dipark@deu.ac.kr, Tel : 051-850-8650  
· 접수 : 2005/01/31 · 수정 : 2005/02/28 · 채택 : 2005/03/25

보 삼고 이 중 五俞穴의 運行原理 및 五行和鍼法の 이론 및 比較脈診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五行和鍼法에서의 五俞穴의 運用原理

五俞穴은 四肢 肘膝 以下の 井, 榮, 輸, 經, 合의 五個 特定穴을 말한다. 五俞穴은 五行의 屬性이 運用 配合되어져 있으며 陰陽經에 五行이 다르게 결합되어져 있다. 五行和鍼法은 五俞穴을 사용해서 치료하므로 五俞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選穴이 바르다. 五俞穴은 天干相合을 따라 配屬되어 있다.

(1) 陰陽表裏相合 및 六氣相合

五行和鍼法에서는 臟腑 및 三陰三陽의 表裏關係가 五俞穴 사용의 기본이 된다. 예를 들어 肝과 膽은 木으로 귀속되는 특징을 가진 한 요소의 陰陽의 分과상인데, 이 때문에 肝이 實해지면 그 만큼 膽이 虛해질 것이고, 膽이 虛해지는 만큼 肝이 實해질 것이다. 六氣 및 三陰三陽의 關係에서도 설명이 가능한데 足厥陰이 實해지면 足少陽이 虛해지고 足少陽이 實해지면 足厥陰이 虛해진다는 陰陽表裏關係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關係를 분석해보면 陽明과 表裏를 이루는 太陰은 燥濕의 對立과 轉化關係가 있고 太陽과 表裏를 이루는 少陰은 寒熱의 對立과 轉化關係를 이루고 厥陰과 表裏를 이루는 少陽은 風火의 同化關係를 이루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sup>2)</sup> 즉 寒熱은 寒이 極하면 熱로 轉化되고 熱이 極하면 寒으로 轉化되며 또 寒이 不足하더라도 熱로 轉化되며 熱이 不足하더라도 寒으로 쉽게 轉化되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燥濕도 역시 燥氣가 有餘하면 燥가 되지만 不足하면 濕이 되고 濕地가 有餘하면 濕을 이루지만 不足하면 燥가 된다. 風火의 關係는 木生火의 相生關係가 있어 風은 火로 쉽게 轉化되고 또 熱極生風으로 兩者間에는 밀접한 關係가 있다.<sup>3)</sup>

(2) 人迎氣口脈診의 관점에서 陰陽 六氣相合의 설명

人迎氣口脈法<sup>4)</sup>은 인체 내의 여러 부위 중 특히 人迎脈과 氣口脈이 두 부위의 脈을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十二經脈의 病變을 파악하는 脈法이다. 人迎氣口脈法에 대한 내용은 黃帝內經素問 靈樞의 전반에 걸쳐 언급되고 있는바, 靈樞 經脈, 素問 脈要精微論, 素問 陰陽別論, 素問 六節臟象論, 靈樞 終始, 靈樞 禁服, 靈樞 五色, 靈樞 論疾診脈 등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人迎氣口脈의 부위를 보면 人迎은 結喉 兩 頰의 動脈이며 足陽明胃經이 通하는 곳으로 陽을 주관하고, 氣口는 手太陰肺經이 지나가는 곳으로 太淵穴 부위의 動脈의 박동치이며 陰을 주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人迎과 氣口의 兩側脈을 통하여 五臟의 陰과 六腑의 陽의 虛實과 盛衰를 살펴볼 수 있는데, 人迎脈과 氣口脈의 상대적인 偏差는 인체 내의 陰과 陽의 불균형 상태라고 보았으며 人迎과 氣口脈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인체 내의 陰과 陽 또한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靈樞 終始篇>에서는 “이른바 平人이란 병이 없다는 뜻이다. 병이 없는 자는 脈口(氣口)와 人迎이 四時에 應하고 上下가 相應하여 함께 往來한다. 六經의 脈이 結動하지 않고 本末의 寒溫이 서로 守司하고 形肉과 血氣가 반드시 均衡이 맞는 사람을 平人이라고 한다.” 고 하였다. 만약 人迎과 氣口脈이 서로 조절이 되지 않을때 그것은 곧 病變이 脈象에 반영됨을 의미한다. 人迎脈이 왕성하면 病이 三陽의 腑에 있고 氣口脈이 왕성하면 疾病이 三陰의 臟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太陰은 三陰의 氣를 運行하고 陽明은 三陽의 氣를 運行하기 때문이다.

人迎이 一盛하면 병이 少陽에 있고, 二盛하면 太陽, 三盛하면 陽明에 있다. 氣口(脈口)가 一盛하면 병이 厥陰에 있고, 二盛하면 少陰, 三盛하면 太陰에 있다.<sup>5)</sup> 그 치료는 人迎一盛이면 足少陽을 瀉하고 足厥陰을 補하고, 人迎二盛이면 足太陽을 瀉하고 足少陰을 補하고, 人迎三盛이면 足陽明을 瀉하고 足太陰을 補한다. 脈口一盛이면 足厥陰을 瀉하고 足少陽을 補하고, 脈口二盛이면 足少陰을 瀉하고 足太陽을 補하며, 脈口三盛이면 足太陰을 瀉하고 足陽明을 補한다.<sup>6)</sup> 人迎一盛하면 병이 足少陽膽經에 있는데 膽과 肝은 表裏이기 때문에 膽實이면 먼저 肝虛해진다. 따라서 당연히 足少陽膽經을 瀉하고 足厥陰肝經을 補한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와같이 한다.<sup>7)</sup> 따라서 五行和鍼法の 五俞穴의 運用原理 및 臟腑의 虛實에 대한 개념은 陰實이면 陽虛하고 陽實이면 陰虛한 陰陽六氣相合 및 人迎氣口脈法の 三陰三陽의 虛實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다.

(3) 五行적 개념에 의한 天干相合

天干이란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를 말한다. 이것은 十干이라고도 하는데 十이란 河洛의 象數論에서 불 때 우주의 기본수며 완성수가 된다. 甲乙은 木이 되고 丙丁은 火가 되며 戊己는 土가 되고 庚辛은 金이 되며 壬癸는 水가 되어 十干은 곧 五行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五行은 天의 變化를 뜻한다.<sup>8)</sup>

劉溫舒의 素問立式運氣論五에서 ‘甲丙戊庚壬爲陽 乙丁己辛癸爲陰’이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傷寒直格에서는 ‘凡先言者 爲剛爲陽 後言者 爲柔爲陰也’라 하여 先陽後陰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sup>9)</sup>

그리고 木火土金水에는 肝心脾肺腎 膽 小腸 胃 大腸 膀胱이 陰臟 陽腑로 配屬됨으로 天干의 臟腑配屬은 표 1, 2와 같다.

1) 송의 저서 和鍼法은 크게 입문편과 和鍼法편으로 나뉜다. 입문편에서는 五俞穴 相合 脈診 刺鍼法을 설명하였고, 和鍼法편에서는 75難을 설명한 후 각각의 체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2) 윤창열, 陰陽五行論에 관한 考察, 의철학, p. 29.  
3) 윤창열, 六氣의 標本中氣와 질병발생의 기전에 관한 연구, 의철학, p. 397.  
4) 人迎氣口脈法은 三部九候脈法과 寸口脈法の 중간과정에 있는 脈法이지만 氣口와 人迎脈의 상대적 편차를 이용하여 臟腑의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을 判別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 두 脈의 비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고 간단한 진단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5) 人迎一盛, 病在足少陽, 一盛而躁, 病在手少陽, 人迎二盛, 病在足太陽, 二盛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盛, 病在足陽明, 三盛而躁, 病在手陽明 人迎四盛, 且大且數, 名曰溢陽, 溢陽爲外格, 脈口一盛, 病在足厥陰, 厥陰一盛而躁, 在手心主, 脈口二盛, 病在足少陰, 二盛而躁, 在手少陰, 脈口三盛, 病在足太陰, 三盛而躁, 在手太陰(靈樞, 終始篇)  
6) 人迎一盛, 寫足少陽而補足厥陰, 二寫一補, 日一取之, 必切而驗之, 疏取之上, 氣和乃止. 人迎二盛, 寫足太陽, 補足少陰, 二寫一補, 二日一取之, 必切而驗之, 疏取之上, 氣和乃止. 人迎三盛, 寫足陽明而補足太陰, 二寫一補, 日二取之, 必切而驗之, 疏取之上, 氣和乃止. 脈口一盛, 寫足厥陰而補足少陽, 二補一寫, 日一取之, 必切而驗之, 疏而取上, 氣和乃止. 脈口二盛, 寫足少陰而補足太陽, 二補一寫, 二日一取之, 必切而驗之, 疎取之上, 氣和乃止. 脈口三盛, 寫足太陰而補足陽明, 二補一寫, 日二取之, 必切而驗之, 疏而取之上, 氣和乃止.(靈樞, 終始篇)  
7) 陳夢雷, 의경주석(의부전독), pp. 68-70,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88.  
8) 간지의학, 김창준, p. 16  
9) 윤창열, 十干과 十二支에 대한 考察, 의철학, p. 101.

표 1. 天干의 臟腑配屬<sup>10)</sup>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臟腑	膽	肝	小腸	心	胃	脾	大腸	肺	膀胱	腎
五行	木		火		土		金		水	

표 2.

甲己合	膽	脾	實	肝虛
乙庚合	肝	大腸	實	肺虛
丙辛合	小腸	肺	實	心虛
丁壬合	心	膀胱	實	腎虛
戊癸合	胃	腎	實	脾虛

五行和鍼法에서는 天干相合이라고 하여 標本中氣論 陰陽六氣相合理論에 의하여 肺虛면 大腸實이 된다. 그리고 肺가 虛하면 金克木이 되지 못하여 肝이 實해진다. 따라서 肝 大腸의 虛實이 같이 간다. 다시 말하면 肝을 瀉해서 좋으면 大腸을 瀉해도 좋다는 의미이다. 肝虛면 膽實이다. 그리고 肝이 虛하면 木克土가 되지 못하여 脾가 實해진다. 따라서 膽 脾의 虛實이 같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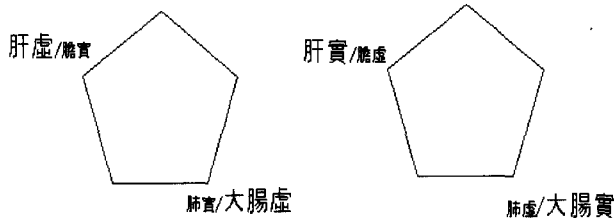


그림 1

표 3. 天干相合에 따른 臟腑 配屬<sup>11)</sup>

木	火	土	金	水
乙	丁	己	辛	癸
肝	心	脾	肺	腎
金	水	木	火	土
庚	壬	甲	丙	戊
大腸	膀胱	膽	小腸	胃

素問의 五運行大論에서 “土主甲己, 金主乙庚, 水主丙辛, 木主丁壬, 火主戊癸”라 하여 甲己가 化土하고 乙庚이 化金하고 丙辛이 化水하고 丁壬이 化木하고 戊癸가 化火함을 밝히고 있다. 一說로는 十干의 剛柔陰陽이 結婚하여 夫婦를 이루어 中을 이룰 때 造化가 生한다는 說에 근거한 이론이 있다.<sup>12)</sup>

10) 송재훈, 和鍼法, p. 25.

11) 송재훈, 和鍼法, p. 24.

12) 類經圖翼에서는 甲剛木 克己柔土爲夫婦而成土運 乙柔木 嫁庚剛金而成金運 丁陰火 配壬陽水而成水運 丙陽火 娶辛柔金而成水運 戊陽土 娶癸

표 4. 十干과 陰陽經의 配合

五臟皆爲陰柔		六腑皆爲陽剛	
陰井木	乙木爲柔	陽井金	庚金剛
陰榮火	丁火爲柔	陽榮水	壬水剛
陰俞土	己土爲柔	陽俞木	甲木剛
陰經金	辛金爲柔	陽經火	丙火剛
陰合水	癸水爲柔	陽合土	戊土剛

天干相合의 이론에 따라 陰木인 肝과 相合하고 있는 것이 陽金인 大腸이고, 陰火인 心과 陽水인 膀胱이 相合하고, 陰土인 脾와 陽木인 膽과 相合, 陰金인 肺와 陽火인 小腸과 相合, 陰水인 腎과 陽土인 胃가 相合하고 있다. 서로 相合한다는 말은 虛實이 같이 간다는 뜻이므로 肝虛면 大腸虛, 心虛면 膀胱虛, 脾虛면 膽虛, 肺虛면 小腸虛, 腎虛면 胃虛, 胃實이면 腎實, 小腸實이면 肺實이 된다. 예를 들어 肝을 補해서 좋으면 大腸을 補해도 좋다. 이것이 化氣五行 및 夫婦相合五行으로 불린다.<sup>13)</sup>

이 原理는 陰陽表裏가 되는 夫婦經絡내에서도 볼 수 있다. 肺 大腸經을 살펴보면 少商을 補해서 좋으면 商陽을 補해도 역시 좋다. 陰木과 陽金이 相合을 이루기 때문이다.(乙庚合金) 陰經絡을 肺經으로 하지 말고 肝經을 대입해도 마찬가지다. 木穴인 大敦을 補해서 좋으면 金穴인 商陽을 補해도 역시 좋다.

표 5.

肺經	木	火	土	金	水
	少商	魚際	太淵	經渠	尺澤
大腸經	金	水	木	火	土
	商陽	二間	三間	陽谿	曲池

결론적으로 陰陽경의 井榮輸經合의 虛實은 같이 간다.

肝을 補해서 좋으면 大腸을 補해도 좋다. 즉 大敦을 補해서 좋으면 商陽을 補해도 좋다. 肝 大腸 虛實이 같이 간다. 각각 經絡안에서 보면 肺경의 井穴인 少商을 補해서 좋으면 大腸經의 井穴인 商陽을 補해도 좋다. 예를 들어 井穴은 陰經의 木穴과 陽經의 金穴은 그 虛實이 같이 간다. 심지어는 主治症도 같다. 難經<sup>14)</sup> 表裏 臟腑의 五行屬性으로 보면 虛實이 반대로 간다. 大敦을 補해서 좋으면 臨泣은 瀉해야 좋다.

陰水而成火運.(類經圖翼). 鍼灸大全에서는 甲與己合 乙與庚合 丙與辛合 丁與壬合 戊與癸合也 何以甲與己合 曰中央戊己屬土 畏東方甲乙之木所克 戊屬陽爲兄 己屬陰爲妹 戊兄遂將己妹 嫁與木家 於甲爲妻 庶得陰陽和合而不得傷 所以甲與己合 餘皆然(윤창열, 十干과 십이지에 대한 고찰, 의철학, p. 101)

13) 三十三難曰, 肝靑象木, 肺白象金. 肝得水而沈, 木得水而浮, 肺得水而浮, 金得水而沈. 其意何也. 然, 肝者, 非爲純木也. 乙角也, 庚之柔. 大言陰與陽, 小言夫與婦. 釋其微陽, 而吸其微陰之氣, 其意榮金. 又行陰道多, 故令肝得水而沈也. 肺者, 非爲純金也. 辛商也, 丙之柔. 大言陰與陽, 小言夫與婦. 釋其微陰, 媾而就火, 其意榮火. 又行陽道多, 故令肺得水而浮也. 肺熱而復沈, 肝熱而復浮者, 何也. 故知辛當歸庚, 乙當歸甲也.

14) 六十四難曰, 《十變》又言, 陰井木, 陽井金, 陰榮火, 陽榮水, 陰俞土, 陽俞木, 陰經金, 陽經火, 陰合水, 陽合土. 陰陽皆不同, 其意何也. 然, 是剛柔之事也. 陰井乙木, 陽井庚金. 陽井庚, 庚者乙之剛也. 陰井乙, 乙者庚之柔也. 乙爲木, 故言陰井木也, 庚爲金, 故言陽井金也. 餘皆倣此.(難經 64년). 六十八難曰, 五藏六腑各有井榮俞經合, 皆何所主. 然, 經言所出爲井, 所流爲榮, 所注爲俞, 所行爲經, 所入爲合. 井主心下滿, 榮主身熱, 俞主體重節痛, 經主喘咳寒熱, 合主逆氣而世. 此五藏六腑井榮俞經合, 所主病也.(難經 68년)

표 6. 五俞穴 주치표

五俞穴	井	榮	輸	經	合
陰經	木	火	土	金	水
陽經	金	水	木	火	土
主治症	心下滿 神志病 心下煩悶	身熱 心大熱發熱	體重節痛 風濕痺痛	喘咳寒熱 咽喉部病證	逆氣而泄 腸胃六腑 病證
	肝病	心病	脾土病	肺金病	腎水病
	病在臟者 取之井	病變于色者 取之榮	病時間時 甚者 取之輸	病變于音者 取之經	經滿而血者病在 胃飲食不節得病 者取之合

그러나 相속에 의해 肝이 實할때 大腸 역시 實하므로 大敦을 瀉할때 商陽을 瀉하면 좋다는 것이지, 大敦瀉와 商陽瀉의 穴性 穴能이 같다는 것은 아니다. 少商과 商陽 역시 相속인데 虛實 이 같이 가지만, 穴性 穴能이 같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人體에 둘 다 같이 보탬이 되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즉 少商을 補해도 보탬이 된다면 商陽을 補해도 보탬이 된다. 따라서 五俞穴은 그 主治症과 五行屬性에 따라 각각 五行과 배합 運用되고 있다. 그런데 五行屬性에 있어 陰經은 陽經과 不同하니 이는 陽經과 陰經間의 剛柔相制의 拮抗의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연유된다. 그러므로 상기의 이론에 의해서 五俞穴을 사용하지 않으면 五俞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된다. 五行和鍼法은 五俞穴을 사용해서 치료하므로 五俞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選穴이 바르다. 五俞穴은 天干相속을 따라 配屬되어 있다.<sup>15)</sup>

2. 五行和鍼法에 따른 難經 75難<sup>16)</sup>의 해석

經言東方實，西方虛，瀉南方，補北方，何謂也。東方實 西方虛는 나타나는 증상이다. 瀉南方 補北方은 治療다. 東方이 實하고 西方이 虛한 환자가 있다.(肝實 肺虛: 木實 金虛) 이 환자에게는 瀉南方 補北方을 하라고 했다.(瀉心 補腎 瀉火 補水)하라고 했다. 왜 그런가?

然 木欲實，金當平之，火欲實，水當平之，土欲實，木當平之，金欲實，火當平之，水欲實，土當平之， 그렇다. 金水木火土가 마땅히 계속해서 번갈아 연속적으로 서로를 平하게 한다. 東方木也는 肝 西方金也는 肺를 의미하며 계속해서 相克으로 제어하는 내용이 나온다. 75難에는 相克의 이론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구문이다.

東方肝也，則知肝實，西方肺也，則知肺虛. 瀉南方火，補北方水. 欲令金不得平木也. 肝이 實하고 肺가 虛한 경우에 그 처방은 瀉南方火 補北方水한다. 즉 心を 瀉하고 腎을 補한다. 肝實 肺虛는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腎을 補하고 心を 瀉한다. 그러면 腎이 虛하고 心이 實할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南方火，火者木之子也，北方水，水者木之母也 火는 木의 子

이고 水는 木의 母이다. 이 조분은 증상으로 나타난 肝實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인다.

水勝火. 子能令母實，母能令子虛，故瀉火補水，欲令金不得平木也. 水가 火를 이긴다. 라고 하고 子는 母로 하여금 實하게 한다. 여기서 기준은 肝이다. 즉 肝의 子인 火가 母인 木을 實하게 한다. 이것은 병인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火實로 火克金하여 金이 虛해져 金克木이 되지 않아 木이 實해진다. 母는 子로 하여금 虛하게 한다. 木을 중심으로 木의 母인 水가 그 子인 木을 虛하게 한다. 이것은 치료원칙이다. 水를 補하면 水克火하여 實한 火가 虛해져 제자리를 잡으면 火가 金을 克하는 힘이 약해져서 虛한 金이 實해지면서 제자리를 잡고 그리하여 건강해진 金이 충분히 木을 克하여 實한 木을 平하게 한다. 그렇다면 원래 水는 虛하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欲令金不得平木也. 그러므로 瀉火 補水하여 金으로 하여금 木을 平하게 한다. 여기서 不자는 餘字로 보고 빼야한다.

經曰不能治其虛，何問其餘，此之謂也. 경에 말하기를 그 虛한 것을 치료하지 않고 어찌 그 나머지를 물으리요? 이는 그 제일 먼저 虛해진 水虛 腎虛를 치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木實 金虛를 치료해 본들 크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문문으로 강조한 것이다. 결국 木實 金虛인의 제일 기본되는 병리는 水虛 腎虛다.

木實 金虛의 환자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水가 虛한 것이 근원이 되고, 그 다음은 火가 實한 것이다.

\* 전체적 五行의 虛實도로 보면 木은 實하고 金은 虛하며 木의 子인 火는 瀉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實하고 木의 母인 水는 補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虛하다. 土의 경우는 水를 補法을 사용할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에 土克水를 할 정도로 세력이 되기 때문에 虛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木實로 木克土하여 土虛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五行和鍼法에서는 中臟器를 아직 邪氣를 받지 않은 臟器 내지는 虛實兩方으로 轉變 가능한 臟器로 보고 있다. 즉 虛實 판별이 불가능한 臟器로 본다.<sup>17)</sup> (조명래 75難 고찰) 제일 먼저 虛해진 장기는 腎이고 腎이 虛해져 心이 實해지고 心이 實해져 肺가 虛해지고 肺가 虛해져 肝이 實해졌다. 五行和鍼法에서는 이를 시간적 추이의 虛實<sup>18)</sup>이라 한다. 木實 金虛의 五臟의 시간추이의 虛實은 아래와 같다.

心 > 肝 > 脾 > 肺 > 腎

3. 五行和鍼法의 五臟처방

五行和鍼法에서는 木實 金虛한 경우에 木實 金虛인이라 보고 그 기본처방은 아래와 같다.

1) 기본처방

腎이 水臟이고 水의 水穴이 陰谷이므로 陰谷을 補했고, 心이 火臟이고 火의 火穴이 少府이므로 少府를 瀉하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처방이며 가장 기본을 해결하는 처방이 된다. 나타나는 증상은 木實 金虛 이므로 2번 처방은 金의 金穴인 經渠를 補하고 木

15) 송재훈, 和鍼法, pp. 25-26.

16) 七十五難曰, 經言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 何謂也. 然, 金水木火土, 當更相平. 東方木也, 西方金也, 木欲實, 金當平之, 火欲實, 水當平之, 土欲實, 木當平之, 金欲實, 火當平之, 水欲實, 土當平之, 東方肝也, 則知肝實, 西方肺也, 則知肺虛. 瀉南方火, 補北方水. 南方火, 火者木之子也, 北方水, 水者木之母也, 水勝火,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故瀉火補水, 欲令金不得平木也. 經曰不能治其虛, 何問其餘, 此之謂也.

17) 이종무, 조명래, 채우석. 難經75難을 이용한 五行鍼에 관한 연구, 대한鍼灸학회지, 18권2호, p 133, 2001.

18) 절대비교의 虛實이 아니다. 實한 脈인 心 肝 중 어느 것이 더 實한지, 虛한 脈인 肺 腎 중 어느 것이 더 虛한지는 알 수 없다.

의 木穴인 大敦을 補하는 것이 2번 처방이 된다. 옛 문헌들은 보 건데 생략의 묘가 있으므로 木實 金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 지도 유추가능하다. 그래서 火實水虛, 土實木虛, 金實火虛, 水實 土虛 등 나머지 네 가지가 찾아질 수 있다. 75難에서 東方實 西 方虛가 아니라 南方實 北方虛 하면 瀉中央 補東方한다로 해석가 능하며 中央實 東方虛 하면 瀉西方 補南方한다 등으로 유추해석 하여 총 다섯가지가 나온다.

(1) 木實金虛人

- ① 陰谷 補(水之水) 少府 瀉(火之火)
- ② 經渠 補(金之金) 大敦 瀉(木之木)

(2) 火實水虛人

- ① 大敦 補 太白 瀉
- ② 陰谷 補 少府 瀉

(3) 土實木虛人

- ① 少府 補 經渠 瀉
- ② 大敦 補 太白 瀉

(4) 金實火虛人

- ① 太白 補 陰谷 瀉
- ② 少府 補 經渠 瀉

(5) 水實土虛人

- ① 經渠 補 大敦 瀉
- ② 太白 補 陰谷 瀉

2) 부가처방

肝心脾肺腎을 대표하는 木火土金水가 상기의 虛實을 나타낸 다면 각 臟안의 五俞穴도 木火土金水を 대표하므로 상기의 虛實 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木實金虛人의 경우 腎의 五俞穴인 木火 土金水인 湧泉 然谷 太谿 復溜 陰谷 중 陰谷 復溜는 虛하고 湧泉 연곡은 實할 것이다. 그리고 虛實을 가름할 수 없는 太谿가 있다. 이것을 시간적 虛實의 추이로 보면 然谷 > 湧泉 > 太谿 > 復溜 > 陰谷 이 된다.心を 예로 들면 心의 五俞穴인 少衝, 少府, 神門, 靈道, 少海 중 靈道 少海는 虛하고 少衝 少府는 實하다. 그리고 虛實을 알 수 없는 神門이 있다. 이것을 시간적 추이의 虛實로 보면 少府 > 少衝 > 神門 > 靈道 > 少海의 순이 된다.

中臟器인 脾는 臟器 자체는 不中他邪해서 虛實 파악이 불 가능한 中臟器 이지만 그 안의 五俞穴은 陰陵泉 商丘는 虛하 고 隱白 大都는 實할 것이다. 그리고 虛實을 알 수 없는 太白 이 있다.

각각 그림 2와 같은 五行의 虛實圖를 가진다.

3) 五行和鍼法の 임상적 運用

木實金虛人의 경우 五臟인 肝心脾肺腎 각각의 木 火 穴은 實하고 金 水 穴은 虛하다. 예를 들어, 肝의 大敦 行間, 心의 少衝 少府, 脾의 隱白 大都, 肺의 少商 魚際, 腎의 湧泉 然谷은 實할 것 이며, 肝의 中封 曲泉, 心의 靈道 少海, 脾의 商丘 陰陵泉, 肺의 經渠 尺澤, 腎의 復溜 陰谷은 虛할 것이다. 만약 木實金虛人이 진 단을 통하여 肝經의 문제로 판단될 경우, 大敦 行間을 瀉하거나 中封 曲泉을 補할 수 있다. 상기의 진단을 위해서는 <靈樞, 經脈 篇>의 是動病 所生病, 및 東醫寶鑑 五臟六腑門의 傷 病證 및 虛 實證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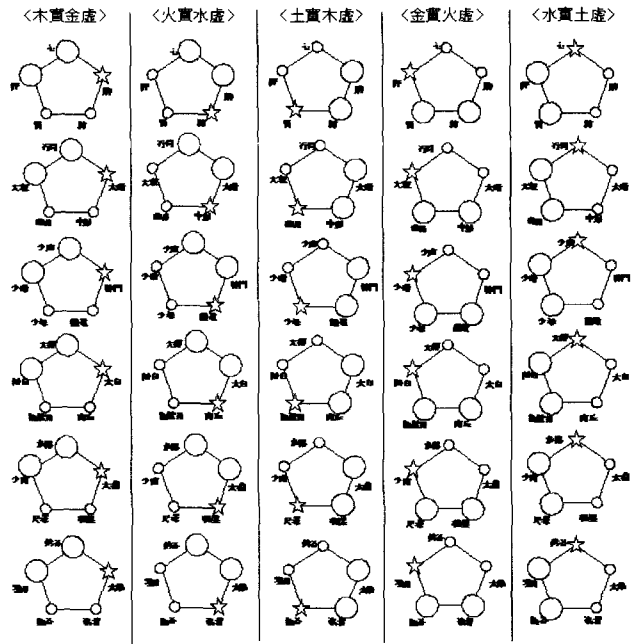


그림 2. 五行의 虛實圖

4. 五行和鍼法の 比較脈診法

五行和鍼法の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5가지 體質로 구별할 수 있을가에 대한 객관적 방법을 마련해 주는 대 목이다. 比較脈診法은 병의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상태 즉 五臟六腑중 어떤 臟腑가 병을 하며 어떤 臟 腑가 주증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比較脈診은 병의 근본을 찾아서 주증으로 한다. 이 주증은 선 천적 五臟六腑의 虛實을 말하는 것으로 母胎中에서 受하고 출생 한 性形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木 火 土 金 水 五人型으로 나누어 水人이라 하면 腎 膀胱을 주증으로 보는 것이다. 아무리 다양한 병증후군도 주 臟腑의 문제로 인해 파생 야기된 것이므로 그 근본 이 되는 주 臟腑를 치하면 충분히 치유된다. 따라서 항상 그 本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제일이 된다. 脈은 인간의 五臟六腑의 활동 을 나타낸다. 臟腑의 활동이 健한지 否한지 환자가 자각하지는 못 하나 脈氣로 반드시 표시됨을 아는 자만이 脈診을 할 수 있다. 이 法은 脈의 虛實을 분별하는 眞法이니 필히 환자의 兩手의 脈 을 동시에 진하면서 五行關係를 대비하여 그 虛實을 찾아낸다.<sup>19)</sup>

五行和鍼法에서는 難經의 寸口脈法을 사용하고 있다. 左脈 은 心 肝 腎, 右脈은 肺 脾 命門으로 나누고 75難의 相克理論에 따라 그 虛實을 비교하여 木實金虛 火實水虛 土實木虛 金實火 虛 水實土虛의 다섯가지의 類型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木實金虛 人의 경우 木火는 實하고, 金水는 虛한 구조식이 나오게 된다. 土 의 경우는 虛實關係에서 뚜렷한 상태를 보이지 않으나 補水의 治法을 사용하기 때문에 水虛가 되어 土는 土克水를 할 정도로 不虛하거나 木實에 의해 木克土가 되어 土虛가 될 수도 있어 虛 나 實의 상태가 모두 가능하게 된다.<sup>20)</sup> 五行和鍼法에서는 脾를

19) 이재원, 陰陽五行鍼구총론, pp. 184-185

20) 이종무, 조명래, 채우석. 難經75難을 이용한 五行鍼에 관한 연구. 대한침 구학회지, 18권2호, p 127, 2001.

中臟器로 보고 不中他邪한 臟器로 두고 설명한다.

이론상으로는 실병이 가능하다 과연 實 虛를 어떻게 구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比較脈診法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 木實金虛의 경우

寸脈의 心脈과 肺脈을 비교하여 心脈이 크고 肺脈이 작다. 關脈의 肝脈과 脾脈을 비교하여 肝脈이 크고 脾脈이 작다. 다음은 脾脈과 腎脈을 비교하여 脾脈이 腎脈보다 크면 木實金虛脈이 된다. 만약 腎脈이 脾脈보다 크면 水實土虛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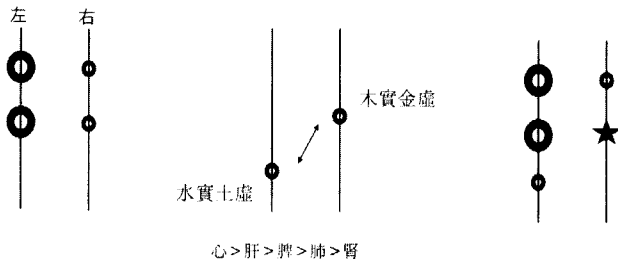


그림 3.

2) 火實水虛의 경우

寸脈의 心脈과 肺脈을 비교하여 心脈이 크고 肺脈이 작다. 다음은 關脈을 비교하여 脾脈이 크고 肝脈이 작다. 그러면 다음은 中臟器인 肺脈과 가장 먼저 虛해진 肝脈을 비교하여 肺脈이 肝脈보다 크면 火實水虛脈이 되고 肝脈이 肺脈보다 크면 木實金虛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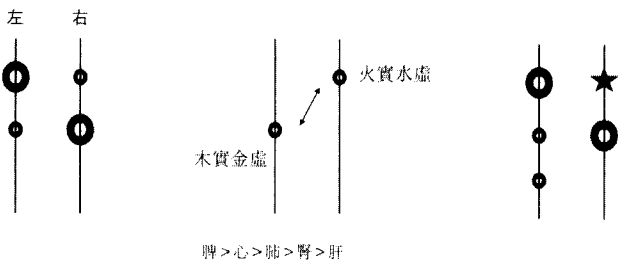


그림 4.

3) 土實木虛의 경우

寸脈의 心脈과 肺脈을 비교하여 肺脈이 心脈보다 크다. 이 경우 다음은 關脈을 비교하여 脾脈이 肝脈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中臟器인 腎脈과 가장 먼저 虛해진 心脈을 비교하여 腎脈이 心脈보다 크면 土實水虛脈이 된다. 만약 心脈이 腎脈보다 크면 火實水虛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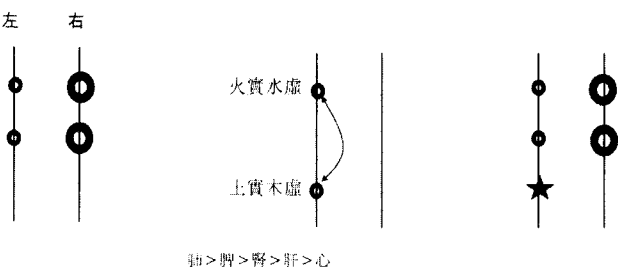


그림 5.

4) 金實火虛의 경우

寸脈의 心脈과 肺脈을 비교하여 肺脈이 心脈보다 크다. 關脈의 肝脈과 脾脈을 비교하여 肝脈이 크다면 비교의 필요가 없이 金實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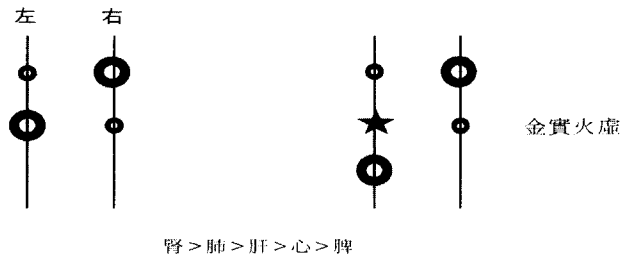


그림 6.

5) 實土虛의 경우

寸脈의 心脈과 肺脈을 비교하여 心脈이 크고 肺脈이 작다. 關脈의 肝脈과 脾脈을 비교하여 肝脈이 크고 脾脈이 작다. 다음은 脾脈과 腎脈을 비교하여 腎脈이 脾脈보다 크면 水實土虛脈이 된다. 만약 脾脈이 腎脈보다 크면 木實金虛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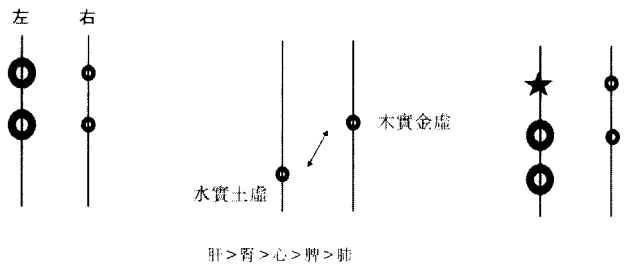


그림 7.

比較脈診이라고 한 것도 木實金虛脈의 경우 腎脈이 제일 虛하고 그 다음은 肺脈 脾脈 肝脈 心脈順이 아니다. 동시의 절대적인 비교는 아니다. 그래서 시간적 추이라고 한 것이다. 순서는 腎脈 肺脈 脾脈 肝脈 心脈 이지만 여기서 비교의 대상이 아닌 腎脈과 肺脈 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더 虛한지 알 수 없으며, 心脈과 肝脈 중 어느 脈이 더 實한지는 알 수 없다.

결론

백단 송재훈 선생님의 五行和鍼法을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和鍼法은 五行鍼法의 한 종류로 다른 五行鍼法과 마찬가지로 五俞穴을 사용해서 치료하므로 五俞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바른 選穴 및 補瀉를 할 수 있다. 五俞穴의 운용원리에 많은 비증을 두고 있으며 五俞穴은 三陰三陽에 의한 陰陽表裏相合 및 天干相合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둘째, 難經의 75難은 五行和鍼法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조문으로 五臟六腑 중 五臟病의 傳變科程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원리는 相克이다. 75難에 따라, 木實金虛人 火實水虛人 土實木虛人 金實火虛人 水實土虛人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따라 기본 처방 및 각 五俞穴의

虛實이 결정된다. 셋째, 比較脈診法에 의해서 木實金虛人 등 5개 유형이 결정되어진다. 이의 이론적 근거는 75難이며 五臟의 虛實이 결정되어 있다. 比較脈診法은 75難에 따른 五臟間의 相克에 의한 虛實比較에 의한다.

### 참고문헌

1. 이종무, 조명래, 채우석. 難經75難을 이용한 五行鍼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8(2):123-135, 2001.
2. 박사현, 신정철, 류종열, 조명래. 人迎氣口脈진의 五行鍼 運用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1(4):149-157, 2004.
3. 정인기, 강성길, 김창환. 五俞穴을 이용한 鍼法의 비교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8(2):186-199, 2001.
4. 김재홍, 조명래. 五行鍼을 이용한 六氣鍼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1):61-73, 2003.
5. 本間祥白. 難經지연구, 정언출판사, 서울, p391-394, 412-422, 480-492, 1985.
6. 최승훈, 難經입문, 법인문화사, 서울, 1998.
7. 김선호, 선호靈樞, 주민출판사, 서울, 2003.
8. 장개빈, 유경도익, 대성문화사, 서울, 1982.
9. 홍원식, 황제내경素問, 전통문화연구회, 1994
10. 홍원식, 황제내경靈樞, 전통문화연구회, 1995